

주식시장 리뷰와 미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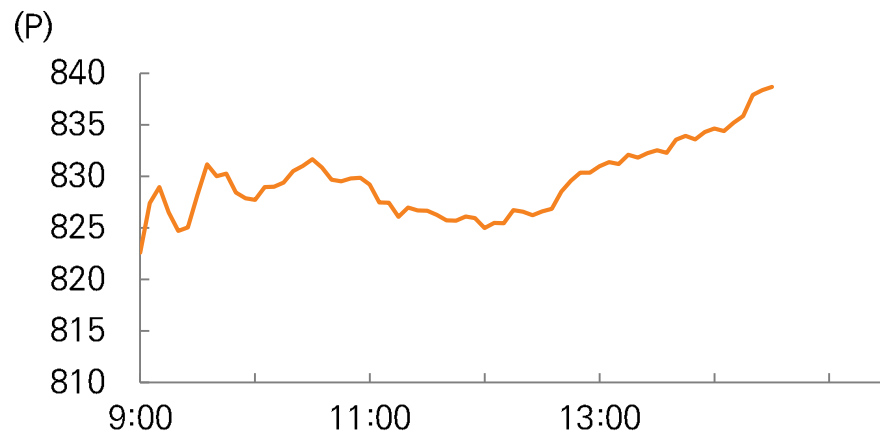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박수진 soojin.park.a@miraeasset.com

코스닥, 9거래일만에 상승

한국 증시 장중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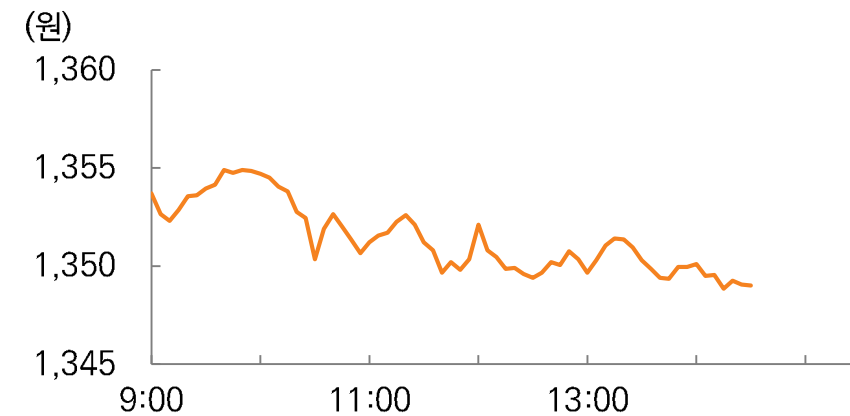
[코스닥, 9거래일만에 상승]

[코스닥 지수 일종 추이]



출처 :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14:30 기준)

[달러/원 환율 일종 추이]



출처 :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14: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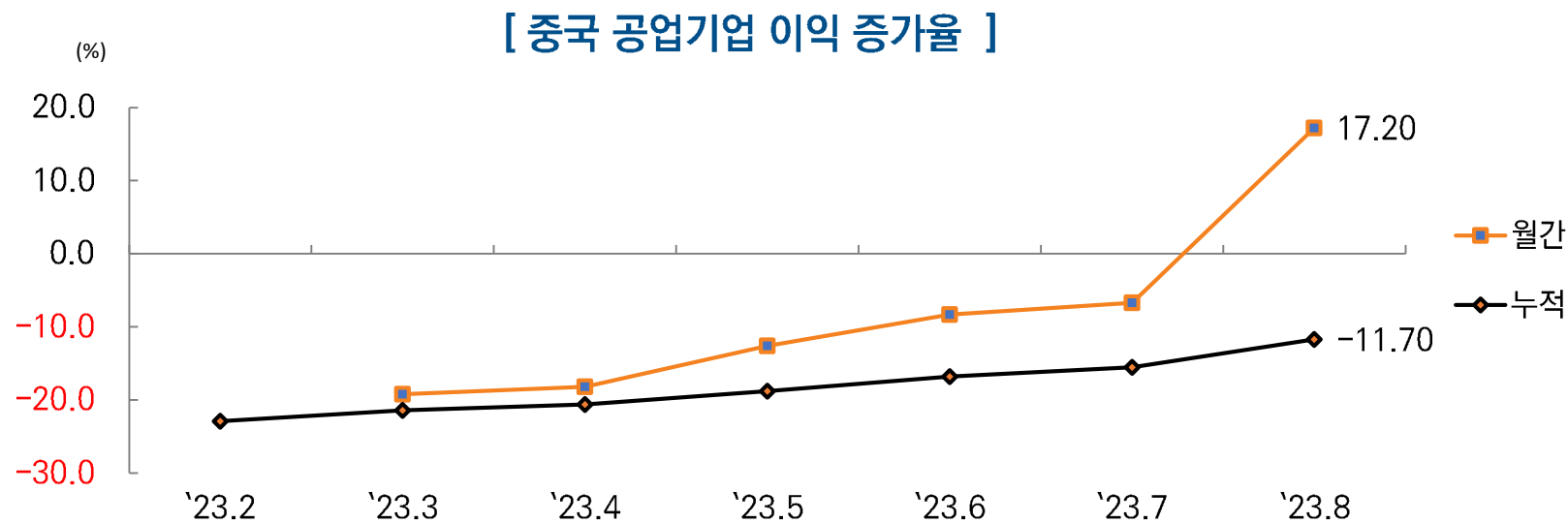
양대 지수 하락 출발 후, 코스닥 지수는 저가 매수 유입되며 9거래일만에 상승. 코스피도 낙폭 축소. 장기 휴장 앞두고 관망세 확대.

달러/원 환율은 장중 1350원을 상회하며 연고점 경신. 다만, 지수 상승 전환에 원화 약세 압력 일부 완화.

제약바이오 업종 강세.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 호조 소식 및 개별 종목 호재 반영되며 투자심리 개선

아시아 증시 장중 리뷰

[중화권 증시,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감에 상승]



중국/홍콩 상승 후 오후장 상승폭 축소.

8월 공업이익 서프라이즈 발표에 투자심리 개선.

8월 공업이익(제조업) 이익은 +17.2%를 기록하며 올해 첫 플러스 성장 기록. 8개월 누적 이익 또한 낙폭 축소되며 제조업 경기 회복 시사.

저가 매수 유입되며 태양광, 제약바이오 업종 강세.

미 증시 전망

[美 상원 임시지출법안 마련, 마이크론 실적 발표]

[1976년 이후 美 연방정부 폐쇄 기간 및 최근 섯다운이 경제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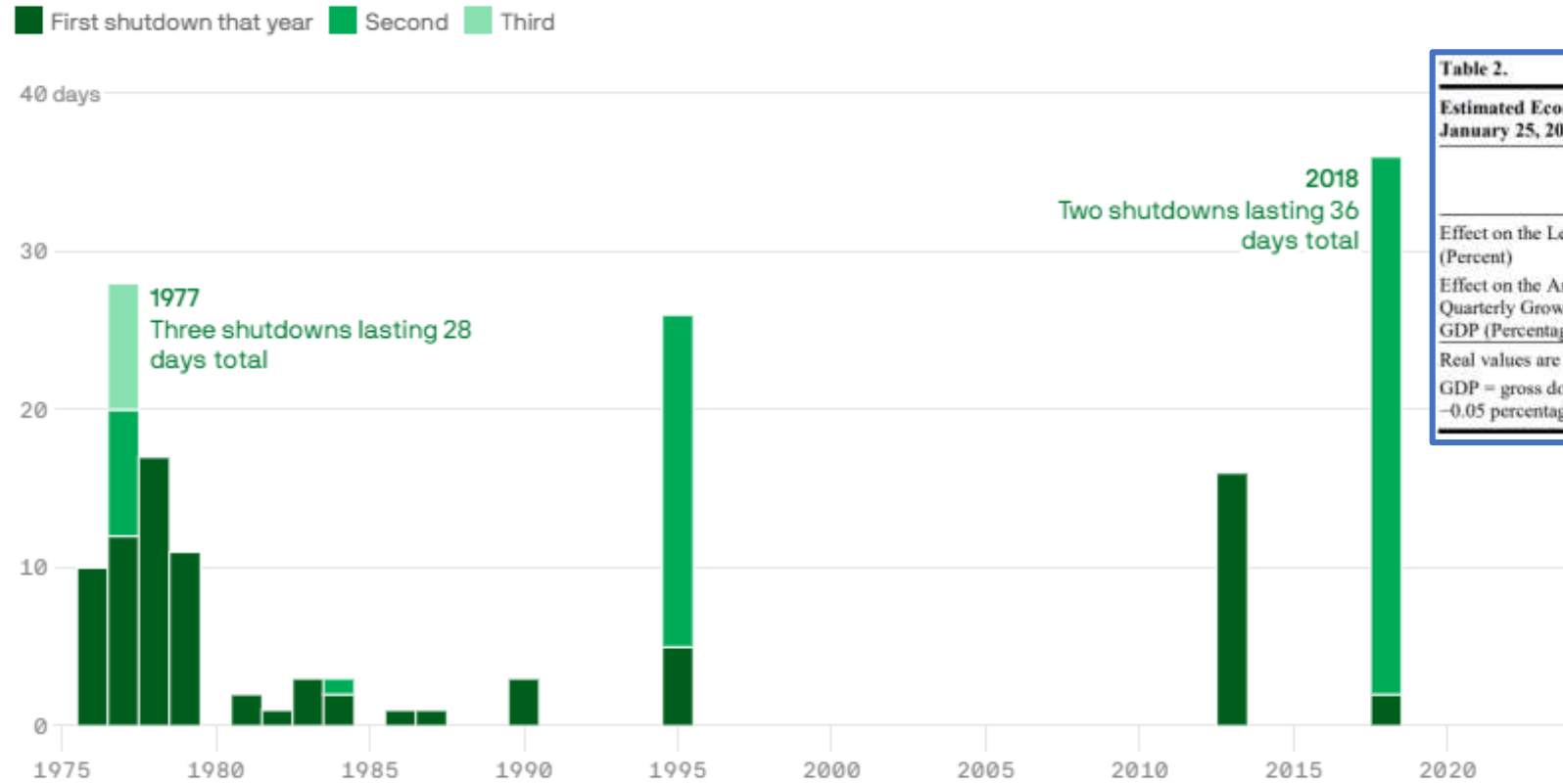


Table 2.
Estimated Economic Effects of the Partial Shutdown Lasting From December 22, 2018, to January 25, 2019

	Fourth Quarter 2018	First Quarter 2019	Second Quarter 2019	Third Quarter 2019	Fourth Quarter 2019
Effect on the Level of Real GDP (Percent)	-0.1	-0.2	0.1	0.1	*
Effect on the Annualized Quarterly Growth Rate of Real GDP (Percentage points)	-0.2	-0.4	1.0	**	-0.3

Real values are nominal values that have been adjusted to remove the effects of changes in prices.
GDP = gross domestic product; * = between zero and 0.05 percent; ** = between -0.05 percentage points and zero.

자료: 미 의회예산국(CBO)

자료: Axios

S&P “금융 비용 증가와 수요 감소로 인해 CRE 대출 손실 증가할 수 있어”

증시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며 S&P 500 지수는 이 달 들어 5% 넘게 하락.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 가까이 하락. 이는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 UAW 파업 및 예산안 처리 지연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실제 美 의회 예산국은 연방정부 폐쇄(섯다운)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금일 장 마감 후 발표되는 마이크론 실적 통해 반도체 산업의 재고 및 향후 전망에 대한 힌트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